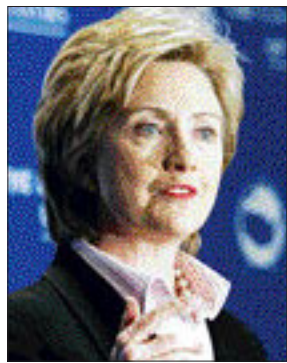


힐러리, 딸 첼시에 '요즘 젊은이...' 발언 사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자신의 딸 첼시에게 "사과를 했다"고 고백, 눈길을 끌었다. 15일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힐러리는 전날 톨아일랜드대학 졸업식 치사에서 "지난번 내가 '요즘 젊은이들은 일하는 것을 마치 육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내 딸에게 사과했다"고 털어놨다. 힐러리는 최근 워싱턴 소재 미 상공회의소 연설때 이 같은 문제의 발언을 했고, 이런 내용을 전해들은 첼시가 곧바로 힐러리에 전화해 "엄마,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내 친구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라며 항의했다는 것. 힐러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첼시의 전화를 받고 다소 당황했고 "앞으로 엄청난 경쟁시대를 살아가게 되면 한 만큼 젊은이들이 목표를 좀 더 높은 곳에 두도록 격려하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힐러리 의원의 외동딸인 첼시는 올해 26세로 스탠퍼드대학과 옥스퍼드대 석사과정을 거친 뒤 지난 2003년 매진지사(社)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두 다리 의족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뉴질랜드 산악인 마크 잉글리스씨



두 다리에 모두 의족을 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산악인이 15일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으로서 최초로 세계 최고봉을 정복하는 기록을 세웠다. 뉴질랜드 언론들에 따르면 마크 잉글리스(47)는 이날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의 8천850m 정상에 우뚝 섰다. 그의 부인 앤은 "그는 평생 에베레스트 정복을 꿈꿔왔었는데 놀라운 일"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잉글리스는 등정에 적합하도록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의족을 하고 지난 달 7일 베이스 캠프에 도착,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섰다. 등정 도중 한쪽 다리 의족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던 그는 갖고 온 부품으로 의족을 수리한 뒤 등정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잉글리스는 산악구조대원으로 일하던 1982년 11월 뉴질랜드 최고봉인 마운트 쿡에서 심한 눈보라로 얼음 동굴 속에 갇혀 있다 동상에 걸려 두 다리를 무릎 아래서 절단하는 아픔을 겪었으나 의족을 달고 다시 산악인의 꿈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3천754m 높이의 마운트 쿡, 그 2년 뒤에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해발 8천201m의 초오유에 올라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다.



광주시 예식협회 창립 초대 회장에 황인연씨

광주시 예식협회는 15일 창립식을 갖고 초대 회장에 황인연(오페라 하우스 대표)씨, 부회장에 백선희(이화위딩 대표)·임광택

(예벌루션 대표)씨 등을 선임, 집행부를 구성하고 올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예식협회는 또 불성실 신고 업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가세 10% 납부 등 성실 업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예식협회에는 예식장·웨딩숍 대표 등 5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신임소장 고바야시 나오히토 씨

"광주-일본 잇는 문화 교류 창구 만들겠다"

"광주에도 일본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창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서울문화센터 고바야시 나오히토(小林直人·57) 소장은 16일 본사를 방문, "문화도시인 광주에 일본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없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고바야시 소장은 기초조사 차 지난 15일 광주에 도착, 광주시청 등을 방문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지난 1972년 일본 외무성이 외국과의 ▲예술·문화 교류 ▲지적 학술 교류 ▲일본어 교육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로 만들었다가 근래 독립 법인화된 단체다. 미국·프랑스·독일·동남아 등 전 세계 8개국에 19개의 센터가 운영중에 있

며, 서울문화센터는 지난 2001년 19번째로 세워졌다. 고바야시 소장은 "서울에는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등이 있고 제주와 부산에는 총영사관이 개설돼 있다. 하지만 광주에는 일본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며 "광주와 일본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창구' 개설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문화센터 3대 소장으로 취임한 고바야시 소장은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선임됐다. 그는 지난 1995년 일본 회사의 서울 주재원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뒤 일본무역진흥회(JETRO·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서울센터에서 근무하는 등 12년 동안 한

국생활을 한 '한국통'이다. 일본에 있을 때에도 KOTRA 동경지사에서 근무했을 정도. "현재는 광주·전남의 문화·예술 수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초보단계입니다. 물론 광주가 문화도시라는 사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 당시 서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5·18을 비롯한 광주의 '아픔'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소장은 "광주·전남은 백제 문화권이기에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는 각별하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는 도시"라며 "광주·전남과 일본이 다양한 문화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바이올린 여제' 소피 무터 한국 나들이

'바이올린의 여제(女帝)' 안네 소피 무터가 한국을 찾았다. 지난 1997년 내한 독주회 이후 9년만으로, 데뷔 30주년,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다음달 18일 오후 7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선다. 무터는 지난 1963년 태어나 5세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 13세 때인 1976년 루체른 페스티벌 무대에 서며 공식 데뷔했고 이제 불꽃의 나이를 넘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루체른 페스티벌 무대에서 거장 카라얀에 의해 발탁된 십대 시절 이후 30년간 줄곧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던 '여제'다. 카라얀은 무터를 "최고의 음악적 재능을 가진 신동"이라며 극찬하며 1977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베를린 필하모니의 협연자로 그를 세웠고, 78년에는 도이체 그라모폰(DG)에서 첫 음반(모차르트 협주곡 3.5번, 베를린 필)도 함께 냈다. 이를 계기로 무터의 활동 영역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로 확대됐다. DG에서의 첫 음반 출시 후 수십 여장의 음반을 발매했고, 이 중 1993년 발매한 '카르멘 판타지'(레반인 지휘, 빈 필) 음반은 DG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뛰어난 미모로도 주목받아온 그는 첫 남편을 1995년 암으로 잃은 뒤 2002년 초 뉴욕에서 무려 34살 연상의 지휘자 겸 작곡가, 피아니스트인 앙드레 프레빈과 전격 결혼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세계적 지휘자와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의 만남인 동시에 수십 년의 나이 차를 극복한 결합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둘의 결혼은 클래식계 최대의 로맨스로 불리기도 했다. 둘은 1990년대 중반부터 종종 한 무대에 서거나 함께 녹음하며 인연을 맺어 왔고, 작곡가이기도 한 프레빈은 무터의 이름을 딴 협주곡 '안네 소피' 등을 비롯하여 음악적 동료이자 아내를 위한 작품들을 작곡해 헌정했다.

데뷔 30주년 기념 6월 18일 오후 7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이택순 경찰청장 '5·18민주묘지' 참배



이택순 경찰청장이 5·18광주민중항쟁 26주년을 앞두고 16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사진) 이 청장의 이날 5·18묘역 참배는 지난해 허준영 전 경찰청장에 이어 현직 차관총수로는 두 번째다. 이날 참배에는 홍영기 전남경찰청장도 광주·전남 지역 일선 경찰서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청장은 민주묘지 입구 방명록에 '민주, 정의, 인권 존중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라고 적은 뒤 기념탑에 헌화, 분향

한 뒤 10여분간 묘지를 둘러봤다. 이 청장은 이어 전남 5·18기념식 교동동 모의훈련(FTX)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교동경찰서 이영수 경사(41)의 빈소가 마련된 광주 동구 금호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국도 최서남단 지역 일선 경찰서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청장은 민주묘지 입구 방명록에 '민주, 정의, 인권 존중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라고 적은 뒤 기념탑에 헌화, 분향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컴퓨터 업계 거부 델 부부, 텍사스대에 5천만달러 기부

미국 컴퓨터 업계의 거부 마이클 델 부부가 텍사스대에 5천만달러를 기부해 소아과 연구소 등의 설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델 부부와 학교측이 15일 밝혔다. 델 부부의 지원금은 소아과연구센터와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동, 건강연구센터 건립에 사용된다. 델 소아과연구센터는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개원할 델 아동병원 옆에 지어질 예정이며 2009년에 문을 열게 된다.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동은 텍사스 대학의 오스틴 캠퍼스 내에 건설되며 건강연구센터도 어린이 성장 발달을



전문 분야로 하게 된다. 수전 델은 마이클 델 등 가족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잘 이해했다"고 말했다. 소아과연구센터는 델 부부의 지원금 중 3천800만달러와 학교측이 끌어온 돈 등 1억달러가 투입되며 텍사스 대학은 이를 통해 미국내 어린이 건강 연구의 선두 그룹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엘비스 프레슬리 저택 90만5천달러에 팔려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던 미국 테네시주(州)의 저택이 심령술사 유리 켈러를 비롯한 3명의 공동 응찰자에게 90만5천100달러에 낙찰됐다. 켈러는 "역사의 하나가 된 이 집을 낙찰받아 아주 기쁘다"면서 과거의 영화를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내방

▲고바야시 나오히토씨(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나순자씨(21세기 여성봉사회 회장)

조계종 종정, 산업현장에 간 까닭은?

근로자 격려 등 파격 행보

불교계 최고 어른인 조계종 종정 법전(80·해인총림 방장) 스님의 잇단 파격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법전 스님은 16일 오후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 등과 함께 경남 거제시 신현 시찰에 나서서 것은 이번이 처음. 법전 스님의 이번 방문은 해인사 교불암 신도회 측의 권유로 이뤄졌다. 법전 스님은 시찰 중 "불가(佛家)에 '一日不作 一日不食(일일부작 일일불)'

식·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노동이야말로 신성한 것으로, 세상을 더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명약(名藥)은 근로자들의 정직한 땀방울"이라고 강조했다. 1시간 반 가량 머물며 삼성중공업 김장만 사장의 안내로 현장을 둘러볼 계획인 법전 스님은 17일에는 거제도에 위치한 포로수용소 유적관을 방문해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한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광주공공 총동창회 정기총회 = 17일(수) 오후 7시 매곡동 아리랑빌 2층 백송실, 575-8255
정읍 호남고 동문회 = 18일(목) 오후 7시30분 용봉동 큰바다해물탕
조대부고 제 19회(회장 기동도) 부부동반총계야유회 = 21일(일) 오전 10시40분 염주체육관 주차장 출발, 369-0081
충진회
창녕조씨 광주·전남 청년회 = 18일(목) 오후 7시 임동 광명해물가든 식당, 010-6688-8983
전주리씨 광주전남 여성이화회(회장 보희) 월례회 = 22일(월) 오전 11시 광주전남도지원 회의실, 225-5631
일림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모집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교육기간은 6월7일~7월6일까지 주 2회(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총 64시간. 문의(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광주지부 광주여성장애인지원센터 654-1366
광주YMCA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 5월27일까지 광주YMCA 전지회에서 접수. 악기경력 3년 이상 또는 스즈키 5년 이상 초등 3년~대학생을 대상으로 5월28일 오디션. 참가비 1만5천원.
광성으로 떠나는 미술관 기행 참가자 모집 = 25일(금) 오전 10시 30분 영산문화센터 1층. 접수는 16일~20일까지로 선착순 30명. 971-5533
광주원광교회 가정사역위원회 제 1기 예비 어머니학교 참여자 모집 = 5월 30일까지로 모집 인원은 50명. 회비 4만원(부부 6만원). 문의 011-9431-1549 010-5627-0009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 = 목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 = 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중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과중 평일 오후 4시~밤 10시까지 운영 225-7224
부음
이내군(서울대 광주·전남 총동창회 고문)씨 별세 진·현·수미·수정씨 부친상 윤복현(목포대 교수)·김흥국(공학박사)·정해동(병원장)·허승면(치과병원)씨 부부상 = 발인 18일(목) 오전 10시 금호장례식장 201호 227-4381
김양성(전 화순부군수)씨 별세 주현(사연)·주영(PSI 컨설턴트)·주희(김주희 소아과 원장)·은주씨 부친상 = 발인 18일(목)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최재철씨 별세 이태·용재씨 부친상 김강재씨 부부상 = 발인 18일(목) 오전 8시30분 무등장례식장 203호 515-4488
넓고 평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초전) 대표: (062) 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 특별분양
문의 (062) 521-1100